나눔 메모

절망 속의 방문

절망의 자리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 소그룹 나눔 자료 · 사사기 13:1-7, 15-20

본문

사사기 13:1-7, 15-20

설교 핵심 요약

삼손이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은 죄와 고난에 너무 익숙해져서 회개해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도 다음 세대에 전하지도 못하는 소망 상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를 부르짖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셨고 자신을 '기묘자'로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해결책도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그 방문에 있습니다.

나눔

1. 여는 질문

1. 상처가 났는데도 아프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2. 설교에서는 한센병 환아가 손에서 피가 나는데도 통증을 못 느껴 그 피로 벽에 그림을 그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을 나눠주세요.

2. 말씀 나눔

1. 사사기 13 장 1 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해 블레셋에게 40 년간 압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전 사사기 이야기들과 달리 이번에는 본문에 빠져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나요?
2.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르짖음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설교에서 말한 '영적 무감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3. 내가 속한 공동체나 내 삶에서, 이미 익숙해져서 더는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죄가 있다면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4.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영혼을 전도해보지 못하고 생명을 낳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그런 '무임신' 상태에 가까운지, 아니면 생명을 낳고 있는지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3. 더 깊이

1.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음식을 대접하겠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며 더듬더듬 확인해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롭게 자신을 반복해서 드러내 보이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세요.
2. 설교자는 20 대와 40 대 성도가 10 년 사이 50% 줄었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다음 세대를 살리자'는 구호는 외쳤지만 정작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사는 기쁨과 책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준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4. 삶의 적용

1. 이번 주 하루를 정해, 내가 불편함 없이 지나쳤던 말이나 행동 하나를 떠올려 하나님 앞에 적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2. 이번 주 익숙한 죄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 할 때, 마노아처럼 "주님, 저에게 다시 오셔서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짧게 부르짖어 보세요.

함께 찾아볼 구절

1. 이사야 9:6 —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 밝힌 그 호칭이 메시아에게 붙여진 바로 그 이름입니다.
2. 시편 32:3-4 — 죄를 깨닫지 못하고 침묵할 때 뼈가 쇠하는 모습이 회개의 감각을 잃은 영적 무감각과 닿아 있습니다.
3. 사사기 6:12-13 —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찾아와 말을 거셨던 장면으로, 하나님이 절망의 자리로 먼저 오시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4. 요한 1 서 1:9 — 죄를 자백할 때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은 죄에 무감각한 상태에서 벗어나 회개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여호와의 사자'(말라크 야훼)는 기드온 이야기에도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본문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며 자신을 '기묘자'라 밝히는 모습을 통해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이전 성자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해됩니다. 마노아 부부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라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번 주 실천

1. 이번 주 가정에서 가족에게 무심코 하던 날카로운 말이나 습관적인 행동 하나를 발견하면, "이거 무감각해진 거 아닐까" 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한마디를 적어보세요.
2. 이번 주 일터나 교회 모임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가볍게 맞장구치려 할 때 잠시 멈추고, "내가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짚어보세요.
3. 이번 주 조용한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문장을 소리 내어 한 번 기도해보세요.

이 중 하나를 골라 실천하고, 다음 모임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

- 죄에 익숙해져 회개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나의 무감각한 부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 생명을 낳지 못하는 '무임신' 신앙에서 벗어나 다음 세대에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 마노아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가르쳐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이번 주 삶에서 실제로 터져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를 짓고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 채, 손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그 피로 벽에 그림을 그리던 아이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반복된 죄와 고난에 너무 익숙해져 돌이켜야 할 필요조차 잊어버린 저희의 영적 무감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노아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 다시 오셔서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기꺼이 찾아오신 기묘자 되신 주님, 저희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다시 찾아와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저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저희를 통해 다음 세대에도 살아 있는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 10. 11. Wellington Letter of Christ Church